



황재균·박병호·김현수 (사진 왼쪽부터)

'유턴' 거물들 리그 판도 바꾼다

황재균을 시작으로 박병호·김현수 차례로 국내 복귀 선언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태평양을 건넌 거물급 선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KBO리그로 돌아왔다.

3년 연속 최하위팀 kt 유니폼을 입은 황재균(30)을 시작으로 박병호(31·넥센), 김현수(29·LG)가 차례로 국내 복귀를 선언했다.

리그 정상급 실력을 가진 이들의 복귀는 내년 시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합류한 세 팀은 올 시즌 포스트 시즌에 나서지 못했다.

이들이 미국 진출 이전의 성적을 보여준다면 소속팀의 전력을 대폭 끌어 올리는 한편, 각종 타이틀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균·박병호·김현수, 빅리그 도전 접고 국내 복귀
황재균은 빅리그 도전 1년 만에 돌아왔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1년 총액 310만 달러(약 38억원)에 스포츠 계약을 맺으며 꿈에 그리던 미국 무대를 밟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소속팀은 지구 최하위의 약체였음에도 황재균은 메이저리그 18경기 출전에 그쳤다. 시즌 대부분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내다 일찌감치 도전의지를 접고 국내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달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황재균은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kt와 4년 총액 88억원에 계약했다.

이어 4년 연속 KBO리그 홈런왕 박병호도 2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친정팀 넥센으로 돌아왔다.

2015시즌이 끝나고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두 번째로 높은 1285만 달러의 포스팅 금액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빅리그 무대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2016시즌 초반 홈런포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부상으로 62경기 출전에 그쳤

다. 올 시즌에는 단 한 번도 홈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 머물렀다.

박병호는 미네소타와 2+1년 계약이 남았지만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연봉 15억원에 넥센행을 결정했다.

최근 김현수도 메이저리그 잔류와 국내 복귀를 두고 저울질하다 LG의 구애를 받고 유턴을 확정했다. 첫째 95경기에 내서 3할(0.302) 타율을 기록하며 연착륙하는 듯 했으나 올 시즌에는 벤치만 달렸다.

급기야 트레이드까지 경험하며 존재감을 잃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빅리그 구단이 있는지 찾았지만 결국 4년 115억원에 두산의 라이벌 LG 유니폼을 입게 됐다.

◇순위 싸움·타이틀 경쟁
올 시즌 5년 만에 포스트시즌을 경험한 롯데는 일본과 미국 무대를 경험한 이대호(35)를 역대 FA 최고액인 150억원을 주고 데려왔다.

롯데는 이대호 영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대호는 정규 시즌 단 2경기를 제외한 142경기에 출전 타율 0.320 34홈런 111타점을 거두며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팀 성적도 수직상승해 5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며 야구 도시 부산을 뜨겁게 달궜다.

국내 유턴파가 합류한 팀들 역시 전력 보강과 함께 체질 개선은 물론, 성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kt는 황재균의 합류로 고질적인 3루 고민을 떨칠 수 있게 됐다. kt는 1군 합류 후 두 시즌 동안 외국인 선수에게 핫코너를 맡겼다. 올 시즌에는 임자 없이 돌려 막기에 비뻤다.

황재균이 합류하면서 내야 포지션에 대한 재인사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공격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거포 박병호가 합류한 넥센 역시 2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린다. 넥센은 박병호의 홈런왕 네 시즌 중 첫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3년 연속

가을 야구를 했다. 그 원동력은 KBO 리그를 지배한 박병호였다.

박병호의 합류로 위력적인 넥센 타선은 더욱 막강한 라인업을 갖추게 됐고 2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꾼다.

이전 소속팀과 연고지 라이벌 관계에 있는 LG 유니폼을 입게 된 김현수는 허술한 LG 외야 라인업에 무게감을 더했다. 동시에 팀내 유망주들에 대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리빌딩 기초를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복귀는 타이틀 경쟁 역시 후끈 달아오르게 할 전망이다.

‘타격계’라 불린 김현수는 2008년 타격과 2008·2009년 최다 안타 부문 1위를 했다.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한다면 타율 0.350과 180안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김선빈(KIA·타율 1위)과 손아섭(롯데·최다안타 1위)이 건강하지 않을 수 없다.

홈런왕 경쟁은 벌써부터 관심이 있다. 박병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최정(SK)은 2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하며 KBO 리그 최고 거포 자리에 올랐다.

박병호는 2012~2015년 4년 연속 홈런왕 타이틀을 가져갔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50홈런을 때려내기도 했다.

2012년 박병호는 31홈런으로 첫 홈런왕에 올랐다. 그 해 최정은 26홈런으로 이 부문 2위를 했다.

그 동안 둘은 서로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5년 만에 박병호의 복귀로 정점에서 진급 승부를 벌이게 됐다.

개인 타이틀과 인연이 없었던 황재균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에 도전한다. 황재균은 최정과 박석민(NC)에 밀려 단 한 번도 차지 못한 황금장갑의 주인이 되려 한다.

/뉴시스

오승환, MLB 클리블랜드 가려나

팬레그스포츠, “오승환 계약 규모 400만 달러 예상”

새로운 동지를 찾고 있는 자유계약선수(FA) 오승환(35)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오승환에 어울리는 팀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팬레그스포츠는 오승환의 계약 규모를 1년 400만 달러(약 49억1000만원)로 전망했다.

MLB닷컴은 25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를 맞아 30개 구단에 선물이 될 만한 영입 후보를 꼽으며 오승환을 클리블랜드에 꼽았다. 올 시즌을 마친 뒤 FA가 된 브라이언 쇼와 조 스미스를 각각 콜로라도 로키스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떠나보낸 클리블랜드가 불펜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오승환이 적격이라는 것이다.

“오승환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불펜 자원이다. 오승환이 클리블랜드에서 뛰게 된다면 ‘Oh-io’라는 언어 유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가 있는 오키오주에 빗댄 농담이다.

팬레그스포츠는 이날 FA 상위 80명



의 계약 규모를 예상하면서 오승환의 가치를 1년 400만 달러로 잡았다.

전문가와 기사를 작성한 존 헤이먼 모두 같은 의견이다. 헤이먼은 “파이널 보스”가 지난해 주춤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오승환은 빅리그 데뷔 시즌인 지난해 6승 3패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중간계투로 시작했지만 마무리 투수였던 트레버 로젠탈의 부상과 부진으로 마무리 투수로 올라섰다.

올 시즌을 마무리 투수로 출발한 오승환은 다소 주춤했다. 62경기에서 59 1/3이닝을 던지며 1승 6패 20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4.10에 그쳤다. 시즌 중반 중간계투로 밀려나기도 했다.

하지만 빅리그에서 통하는 투수라는 점을 보여준만큼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투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올 겨울 FA 불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도 오승환에게는 호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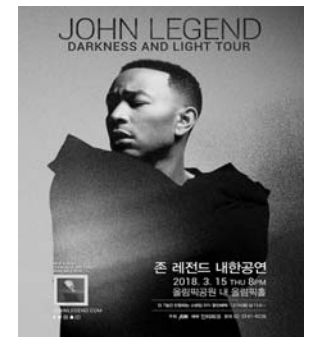
올해 5승 5패 6세이브 22홀드 평균자책점 2.61을 기록한 후안 니카시오는 2년간 1700만 달러에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했고, 앤서니 스와잭은 2년간 1400만 달러에 뉴욕 메츠 유니폼을 입었다.

오승환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시즌을 마치고 지난 10월 귀국, 국내에 머물던 오승환은 곧 일본 오키나와로 떠나 개인 훈련을 할 예정이다.

/뉴시스

‘그라미상’ R&B 뮤지션 존 레전드, 4년 만에 내한공연

내년 3월15일



‘그라미상’ 10회 수상에 빛나는 R&B 솔 뮤지션 존 레전드가 4년 만에 내한공연한다.

26일 공연기획사 에이아이엠에 따르면 레전드는 내년 3월15일 오후 8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4년 만에 내한공연을 펼친다.

2009년 첫 내한공연 매진을 기록한 이후 매 무어 마다 한국을 찾은 레전드는 단독 공연 3회를 비롯해 음악 페스티벌, 여수엑스포, MAMA에 참석하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R&B 뮤지션임을 입증해 왔다.

레전드는 2004년 데뷔앨범 ‘겟 리프트드(Get Lifted)’로 제48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뉴 아티스트’ 등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2013년 발매한 4집 ‘러브 인 퓨처(Love In Future)’의 수록곡 ‘올 오브 미’가 빌보드 차트 1위와 유튜브 12억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성기를 누린다.

그의 인기는 스크린까지 이어졌다. 2015년 미국의 래퍼 커먼과 참여한 영화 ‘셀마’ OST의 수록곡

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도 의견을 보태왔다.

이번 달 1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콘서트에 참여했으며 현재 미국의 사법 제도를 바로 세우는 ‘프리 아메리카(Free America)’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2017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2009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렸다.

이번 내한공연은 지난해 발매된 앨범 ‘다크니스 앤드 라이트’를 기념한 월드투어다.

미국, 유럽 15개국에서 50여회의 공연을 이미 진행했다.

해외 예매사이트인 티켓마스터에 따르면 관객들은 이번 투어에 별 5개 만점 중 4.7점을 수여했고, 3400개 이상의 리뷰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크니스 앤드 라이트’ 수록곡과 ‘올 오브 미’, ‘세이프 룸’, ‘오더리니 퍼플’ 등을 들려준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